

보도기사

신문명 : 전북도민일보

일자 : 22. 5. 31.

3

면



농어촌공무진장지사, 농촌 집 고쳐주기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편동현)는 27일 농촌 집 고쳐주기 활동을 실시했다. 농촌 집 고쳐주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솜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농어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삶의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저소득 가정을 선정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을 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활동에는 농어촌공사 직원 20여명이 참여 했으며, 노후된 보일러와 도배, 장판 등을 새롭게 교체하고, 가재도구 정리 및 청소를 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관련부서

조치의견